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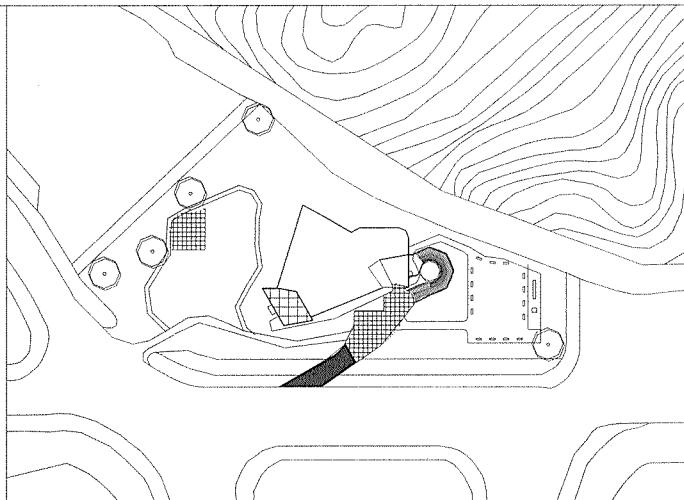
아펜젤러 기념교회

Appenzeller Commemoration Church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 · 을
Designed by Kim Suk-Hwan

건축개요

대지우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39-6번지
지역지구	대학부지(배제대학교내)
도로현황	8M 도로
대지면적	2,250.0m ²
건축면적	480.0m ²
건폐율	21.33%
연면적	976.69m ²
용적율	43.41%
규모	지상2층
구조방식	R.C조
건물높이	11.0M
주요용도	교회
주요외장	회벽
설비방식	중앙공급식
주차대수	9대
설계년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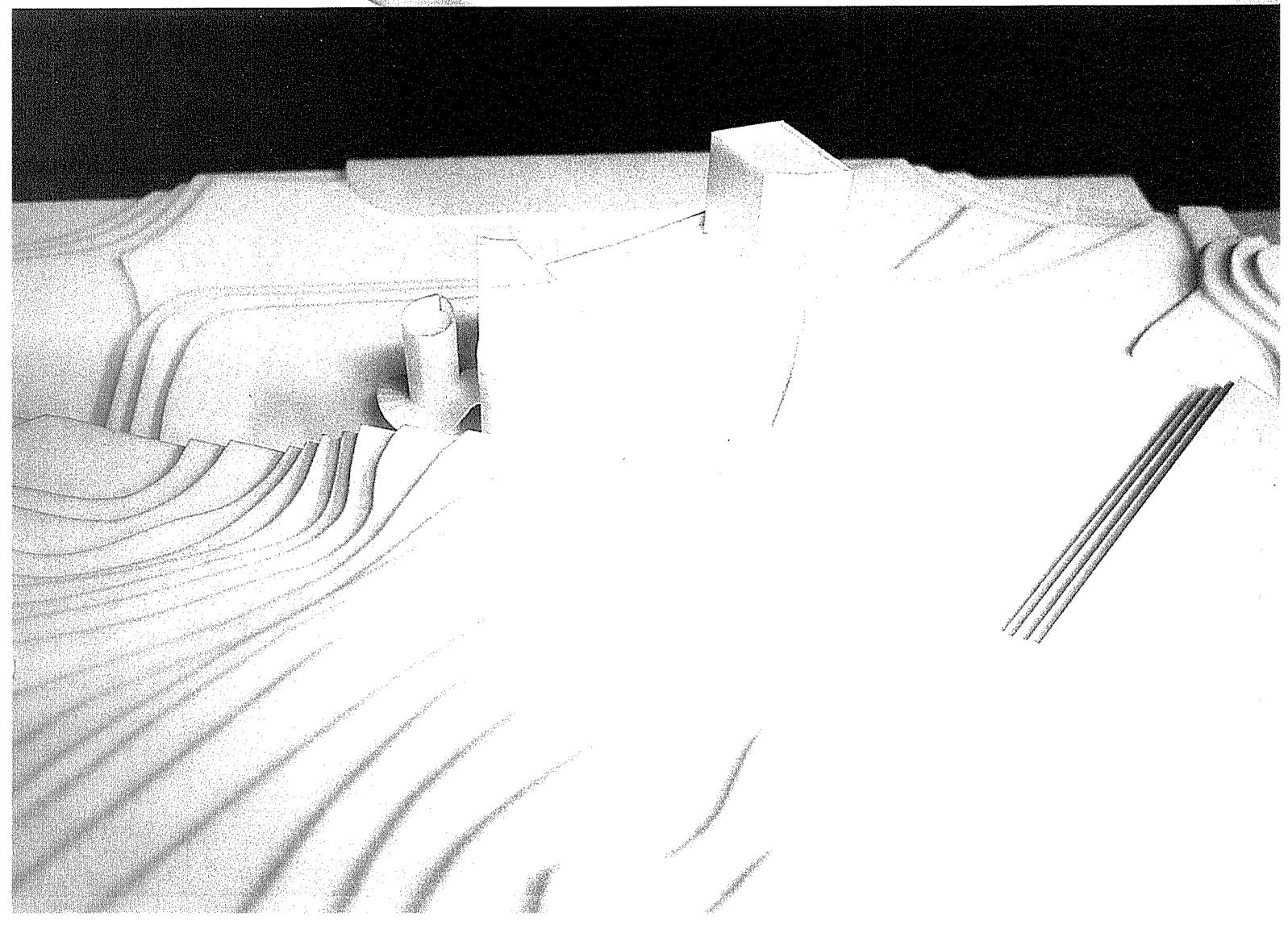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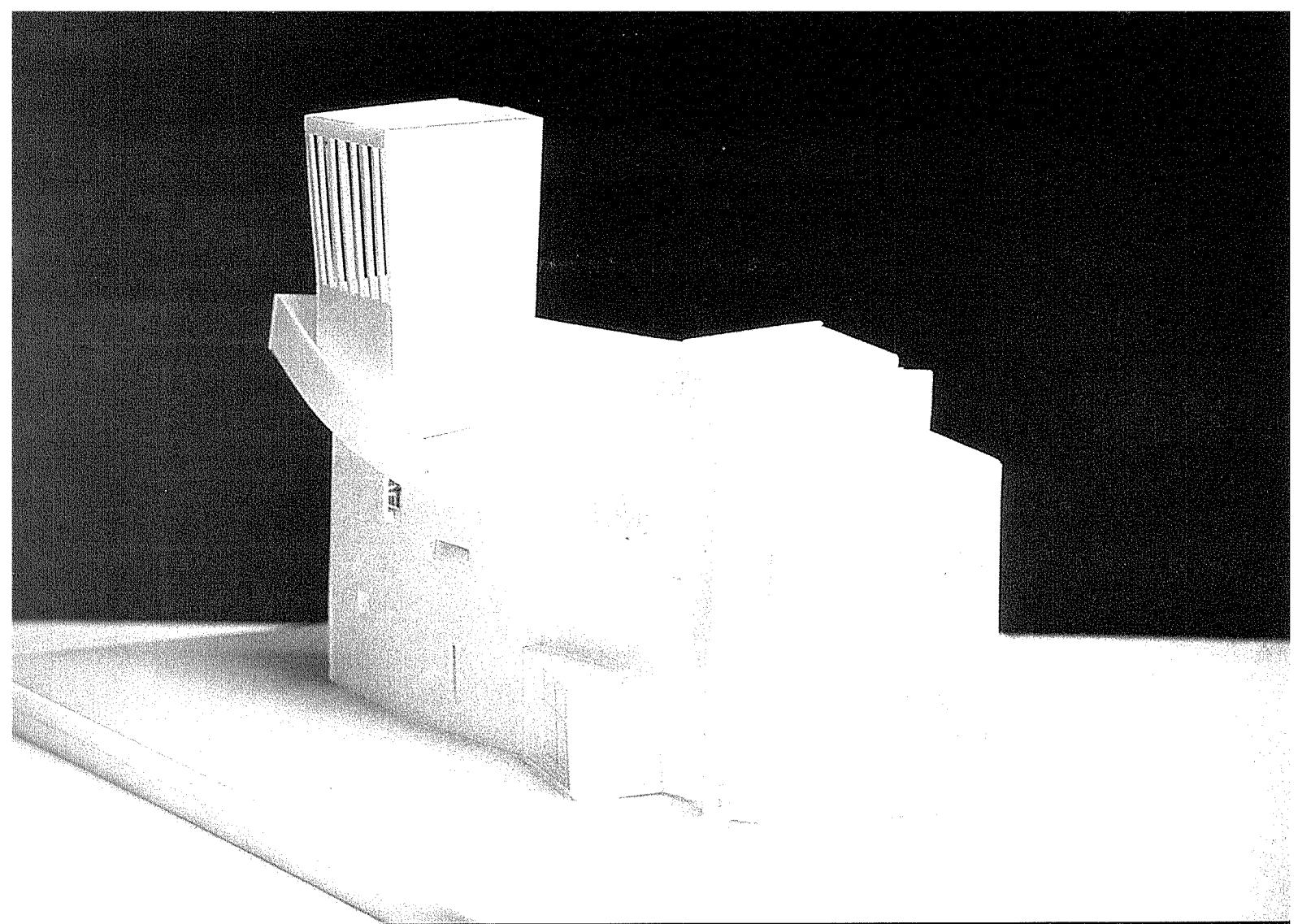
배치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 디딤으로서 이 땅에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수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말처럼 개신교는 어느덧 굵고 무성한 나무로 성장해 있다. 그렇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군산앞 오식도 근처에서 큰배와 충돌한 사고로 조난을 당해 순직하고 말았다. 그는 서울을 출발하기 전 정신여고 학생을 데려다 달리는 부탁을 받고 동행하고 있었는데, 수영에 능했던 아펜젤러는 조난 당한 기선에서 스스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데리고 가던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26세 젊은 나이에 이국 만리에 와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의 삶은 44세에 그렇게 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격동의 구한말 한국근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과 예수의 고난을 연상케 하는 숭고한 삶은 큰 의미로 기억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돌아볼 만한 기념관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한 세기

가 흘렀다.

그러던 차에 그가 설립한 정동제일교회와 배제대학교 전영배교수 등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금을 내고 하며 아펜젤러 기념교회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회 부지는 배제대학교 교내로 정해 놓고 있었는데,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창립하였으며 배제대학교도 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배제대학 캠퍼스는 자연지형을 등지고 숲과 건물이 어우러진 폐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회 부지는 정문에서 학교로 진입할 때 정면으로 올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밖으로부터 정문을 통하는 약 15%정도의 오르막 경사도로가 있는데, 도로면에서 약 4.5M 높게 가로 75M 세로 30M 정도 평坦하게 닦여 있는 교회터는 정문에서 정면으로 보여서 교정을 출입할 때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잘 인지되는 곳이다. 그래서 상징성을 충족하기에 안성맞춤인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이 교회는 아펜젤러 목사의 기념과 예배기능을 함께 갖도록 계획되었는데, 배제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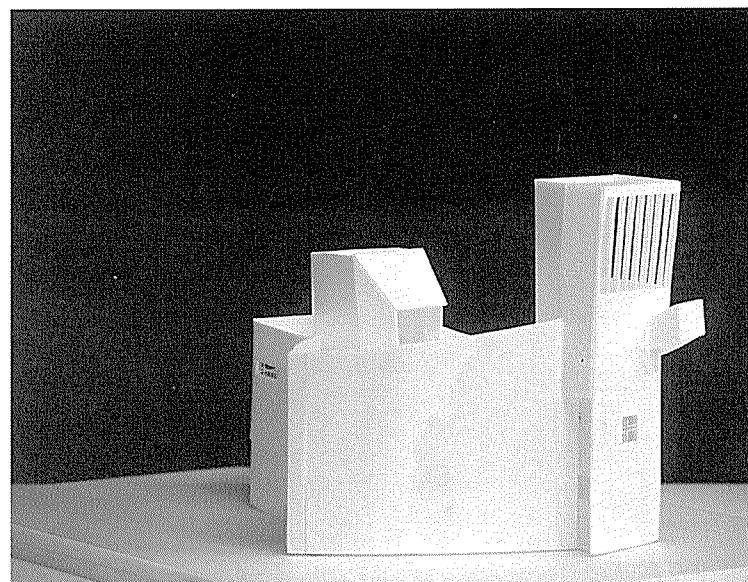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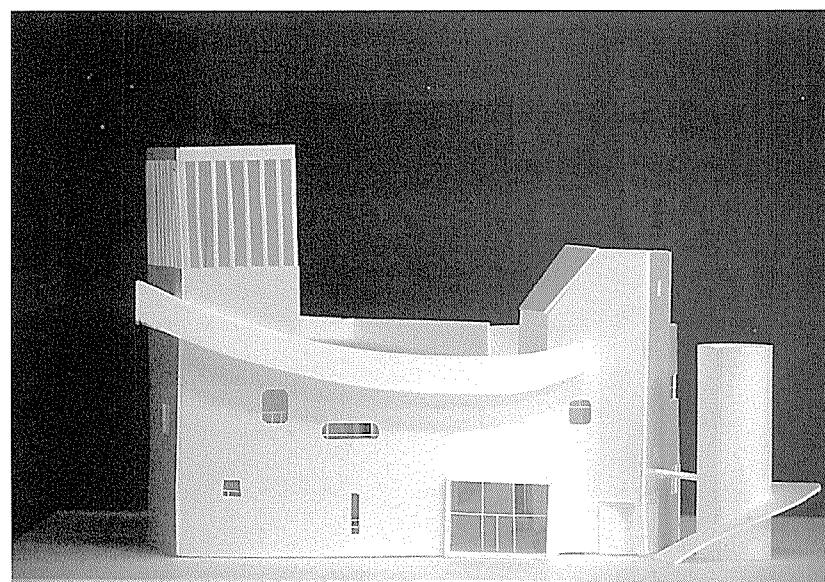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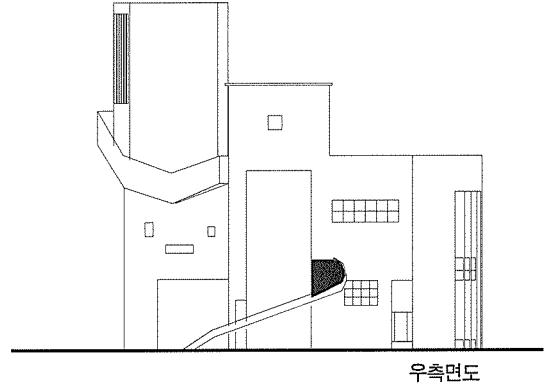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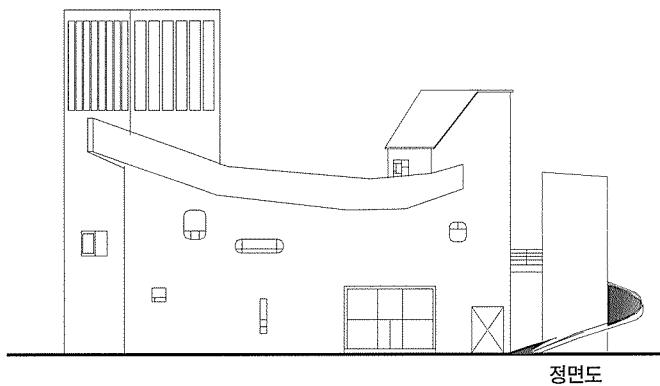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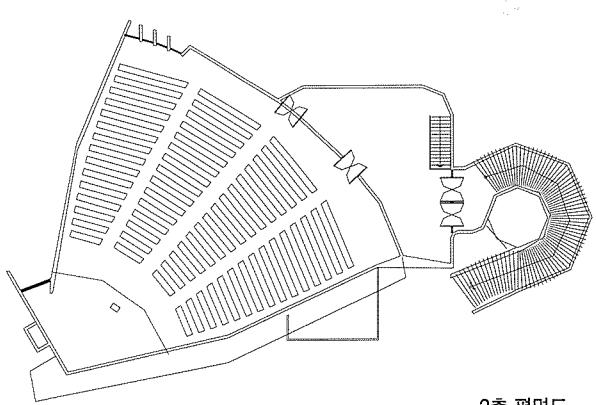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순례교회의 성격도 갖는다. 교회 규모는 연면적 300평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예산 확보의 측면도 고려된 것이지만 기념성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도로에서 버스듬히 언덕을 올라 교회 앞마당에 이르면 정면에 기념관 홀로 들어가는 박스 형태의 문이 있고, 그 우측에는 예배당으로 오르는 경사로가 있다. 1층 기념관은 아펜젤러 목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다. 홀 근처에는 교회사무실을 두어 교회기능과 관리에 편리하게 쓰이도록 했다. 2층 예배실은 1층 기념관을 둘러 홀에서 계단을 통해 오를 수도 있고, 옥외 경사로를 통해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도 있다. 예배당의 평면은 외부로 만곡된 형태로서 벽면에 둘러싸여 옥외에서와 같이 제단을 향해 시선이 자유롭게 모여들도록 했다. 종교의 구원은 영적인 감화로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영성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적정한

부피와 빛의 작용을 생각했다. 제단에는 측면 스테인드 그拉斯를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예배당에는 천장과 측면의 작은 창에서 각각의 특색을 띤 빛들이 모여들게 했다. 예배당 입구 홀은 친교에 알맞게 쓰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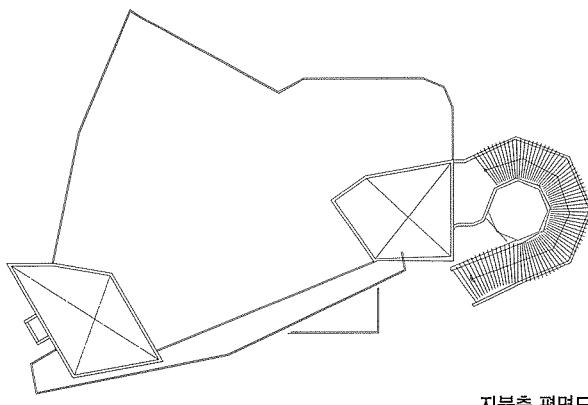
건물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형태로 되어 있다. 곡선으로 된 건물벽 선의 완만한 흐름과 빛의 통로와 경사로의 원통 등 수직적 요소의 매스가 형태와 높이를 달리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교회 주변은 마당을 꾸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색과 대화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흰색으로 통일된 건물 형태의 힘이 외부공간에 끼쳐지게 했다.

이 계획안은 98년 설계를 의뢰 받고 만들어 설명회를 가졌으나 그 뒤 추진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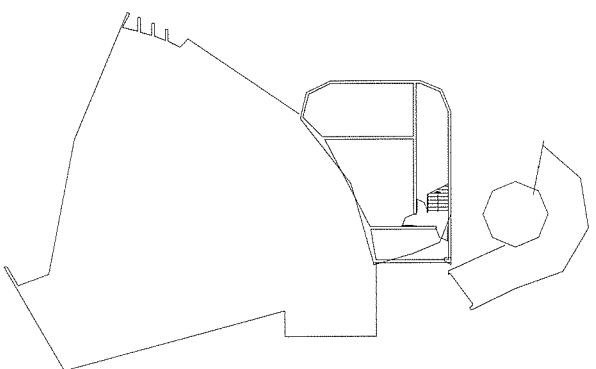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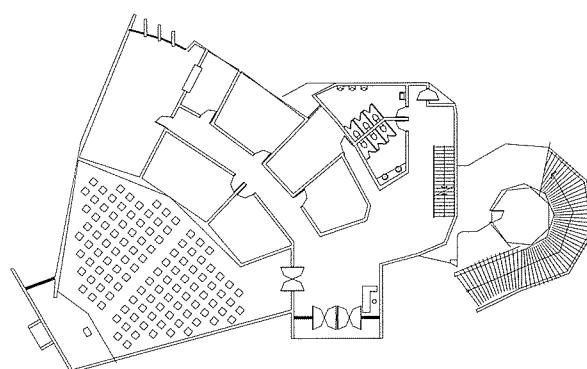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